

“中企 해외전시회 참가 독려해야”

中企인 한마디

김선일 UTA기술사업화 단장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성장하려면 해외시장 개척이 필수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쇼인 CES나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전시회인 MWC 등 간판 전시회에 대거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를 뒷받침할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를 참관하고 미국 대학 등을 둘러본 뒤 최근 귀국한 김선일 UTA기술사업화전문가단장(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64·사진)의 진단이다. UTA기술사업화전문가단은 정부 연구개발사업 중 우수한 기초·원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한 뒤 융합연구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이 핵심이다. 김 단장은 2000년 메디칼스탠더드라는 회사를 창업한 중소기업인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의료영상장치 전문업체다. 김 단장은 대주주로 있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긴 상태다.

김 단장은 “중소기업이건 창업

기업이건 좁은 내수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며 “결국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 세계적인 전시회에 출품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CES에서도 중국 중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한국 중소기업은 이들의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출품 숫자가 적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단장은 “한국의 문제점은 삼성 LG 등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크고 피라미드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중·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전시회 참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소규모 지원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에어룸 무전원 변기 시트 모듈

“변기에 붙이면 자동 물내림 ... 전기 필요 없어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물내림 레버를 누르려다가 멈춰서 있는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세균이 득실거리는 공중화장실에서 레버를 손으로 만져도 될까?’ 그래서 휴지를 뜯어 레버를 감싼 뒤 누르기도 한다.

에어룸의 무전원 자동물내림 시트 ‘레노크’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제품이다. 전기 등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체 하중만을 이용해 작동한다. 대소변을 스스로 구분해 필요한 물의 양을 전 없이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물을 아끼니 수도요금도 줄일 수 있다.

◆모듈만 붙이면 간편 작동  
5cm 크기의 특수 모듈에 자체 개발한 핵심기술을 담았다. 모듈을 양변기 시트 아래에 붙이기만 하면 된다. 사람이 변기에 앉으면 모듈이 눌러면서 인체 하중을 인식해 스스로 작동한다. 소변은 3~4초, 대변은 10초 기다린 뒤 각각 대·소변에 맞는 적정량의 물을 자동으로 내린다. 물 사용량은 30~50% 절약된다.

이동진 대표는 “대변 물내림은 사람들이 휴지를 버리는 시간까



이동진 에어룸 대표가 무전원 자동물내림 시트에 장착하는 모듈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변기시트로 무게 자동인식  
대소변 구분해 물조절  
중업체와 선전에 합작사 설립

지 감안했다”며 “화장실 물낭비가 줄어들어 공공건물의 절수효과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전기나 건전지 없이 작동된다. 이 대표는 “공중화장실은 전기 콘센트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무전원 시스템으로 설계했다”며 “양변기를 교체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고장이 나면 모듈만 바꿔 끼우면 돼 편리하다.

◆20여년 물내림 ‘한우물’  
에어룸의 모체는 이 대표의 부친인 이재동 씨가 세운 ㈜자동물내림이다. 경기 안산시 시화산업단지에서 세류기(공사차량 세차기) 제조 업체를 운영하던 이씨 부친은 ‘남지 없이 작동된다. 이 대표는 “공중화장실은 전기 콘센트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무전원 시스템으로 설계했다”며 “양변기를 교체

모듈 레노크로 발전시켰다. 레노크는 1급수에만 사는 열목어를 뜻한다.

2012년 사명을 에어룸으로 변경하고 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줬다. 그는 연구소장을 맡아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직원들은 그를 ‘발명가’라고 부른다. 이 대표는 “부친에게 하나씩 배워 대표 자리에 올랐다”며 “실지작업을 위해 전국 현장을 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와 선전에 합작회사  
세류기, 양변기 등 위생도기업체에서 에어룸처럼 한우물만 판 회사는 많지 않다.

전문성과 제품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환경부 WASCO(물절약 전문업) 대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시 신청사를 비롯해 현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에코시스-웰매트 (02)786-7115 △에어룸-무전원 자동물내림 시트 (02)6243-3330 △효성중합-발광 교통안전표지판 (031)871-7284 △트보넷-LED전구 결합형 폐쇄회로TV(CCTV) (02)3216-3983

대차 사육, KT 전국 지점, 하나는 행 및 우리은행 지점 등 공급처가 늘고 있다. 이 대표는 “전국 지사를 모집 중”이라며 “모듈 교체비용이 10만원대로 부담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엔 중국 10대 위생도기업체 안비와 선전에 합작회사를 세웠다. 안비 제품에 자동물내림 모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에어룸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샤워기와 세면기 등을 개발 중이다. 이 대표는 “중합 옥실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화장실 문화를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If you feel missed out ...

한경·THE WALL STREET JOURNAL

Market

Investment

Careers

Business

Opportunities

English Learning

Job seeking

wsj.hankyung.com

If you subscribe to The Korea Economic Daily online, you can also have full access to The Wall Street Journal

MOBILE 한경

메디포스트 “차세대 줄기세포로 시장 선점”

(스페셜)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  
“퇴행성 관절염 주사제로 개발”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호재와 악재를 잇따라 겪었다. 한 시민단체는 “메디포스트가 택졸혈액인 제대혈 효과를 과대광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에서야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지만 회사 실적은 악화된 뒤였다.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텔’이 국내에서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회사에 다행이었다.

올해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사진)에게는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제대혈 보관사업을 추스르고 카티스텔과 후속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경기 성남시 판교 메디포스트 본사에서 만난 양 대표는 “올 들어 제대혈 보관 건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라며 “카티스텔의 일본 임상시험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 보관사업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카티스텔은 이 회사가 2012년 세계 최초로 사람의 줄기세포를 적용해 개발한 치료제다. 지난해 시술 4000건을 돌파하며 연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양 대표는 “지난해 카티스텔 판매량은 1770건으로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며

“이는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쌓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포스트는 미국에서 카티스텔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일본에서 판매 허가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신속허가심사제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차세대 줄기세포인 ‘스멤셀’의 연구개발(R&D)에도 집중하고 있다. �멤셀은 일반 줄기세포보다 크기가 평균적으로 절반가량 작은 줄기세포를 말한다. 줄기세포는 크기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고 생산 효율이 높다. 메디포스트는 �멤셀을 적용한 주사형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 내년 목표로 임상시험 1상을 준비하고 있다.

양 대표는 “메디포스트의 차세대 줄기세포 개발 속도는 다른 업체보다 빠른 편”이라며 “앞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때 �멤셀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근희/조미현기자 tkfcka7@hankyung.com

작년 벤처펀드 조성액 3조원 돌파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이 3조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은 22일 ‘2016년도 신규 벤처펀드 조성 및 신규 벤처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벤처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은 3조1998억원으로 전년(2조7146억원)보다 17.9% 증가했다. 2000년대 집계 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었다. 신규 벤처투자액은 2조1503억원으로 전년(2조858억원)에 비해 3.1% 늘었다. 민간 자본의 벤처펀드 신규 출자는 전년(1조4932억원)보다 35.2% 증가한 2조188억원으로 2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체 벤처펀드 조성액 중 민간자본 비중도 전년(55.0%) 대비 8.1% 포인트 상승한 63.1%를 나타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출자에 관심을 확대하고 신규 민간 출자자를 발굴하는 등 공격적인 벤처투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기기자 idoi@hankyung.com

中企 2곳 중 1곳 “설 자금 부족”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98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

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48.5%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66.4%), 판매대금 회수 지연(35.7%), 원

자재가격 상승(24.7%), 납품단가 인하(21.6%), 금융권 대출 곤란(18.8%)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설 명절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2억2340만원으로 지난해(2억8만)보다 증가했다. 이 중 부족한 금액은 731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민하기자 minari@hankyung.com